



신나는 레이버랜드

가자! 노동자의 영토, 레이버랜드로!

3월 14일, 삼성의 영토인 즐만 알았던 에버랜드가 노동자의 권리와 자존감이 꽃피는 영토로 탈바꿈했다!

에버랜드에 도착하자마자 조합원들의 끼와 열정으로 탄생한 게릴라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삼성은 경찰까지 동원하여 우리를 가리려고 했지만, 삼성을 바꿔 세상을 바꾸겠다는 외침까지 막지는 못했다. 썸들의 '흥'도 날로 넘쳐나고 있었다. 서로의 어깨에 손을 둘러 함께 교감하는 얼굴에 경직됨이나 구김 따윈 없었다. 우린 함께라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를 둘러싼 '경찰통제선'이 무색할 만큼 시민들과 교감하며 게릴라콘서트를 마쳤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금속노조 경기지부조합원들과 썸들은 들뜬 마음으로 나들이를 떠났다. 삼성은 지난 나들이에서 노동자들에게 강제퇴거를 요구했던 것이 문제가 되자, 이번에는 경찰을 동원했다. 썸들을 쫓아다니며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며 해산을 요구했다. 유니폼 입고 에버랜드 가면 불법집회인가? 경찰도 '고객'인 우리에게 별다른 제재를 할 수는 없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에버랜드에 놀러온 시민들 대부분이 우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시민들은 인증샷도 함께 찍어 주며 호응했다. 우리의 자존감은 더 높아지고, "재용씨 노조 몰라요?" 발랄한 목소리도 넓게 퍼졌다.

에버랜드 노동자들의 눈빛도 많이 달라졌다. 작년에는 경직된 눈빛이었다면, 이번에는 응원하는 이들이 생겼다. 삼성에 노조가 대규모로 만들어지고, '또 하나의 약속'이 상영되는 등 삼성이 바뀐다는 사회적 흐름이 느껴지자 노동자들의 분위기도 달라진 것 같다. 다음번 만남이 더 기

대된다.

조합원들의 에너지도 한껏 충전되었다. "시키는 일만 하면서 배고프게 살다가 우리는 재미있게 놀고 삼성은 골머리 썩는 걸 보니 통쾌하다. 우리가 노조를 모를 때 모습을 에버랜드 노동자들에게서 보았다. 반드시 바꾸자."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레이버랜드로 가는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의 투쟁으로, 가자! 레이버랜드!

이제는 시민들과 폐업 철회하고 천국을 만들자!

17일부터 이천분회는 서울-경기를 오가며 폐업철회를 위해 힘차게 싸우고 있다. 전 직원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고, 지역연대 방안도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기사님들 이게 무슨 일이나"며 먼저 조합원들을 알아보고 모여든 고객들의 응원도 이어지고 있다. 그 힘은 서명운동 이틀 만에 1000여명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객들이 우리와 손을 잡고 싸우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이천'이라는 마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자!

잘~ 생겼다! 서수원센터 노조가입

드디어 서수원센터에 노동조합 깃발이 세워졌다. 서수원센터의 등장은 삼성이 해운대, 아산, 이천 센터 폐업으로 노동조합을 흔들려는 시점에서 조직이 오히려 확대되는 반전을 선사했다. 반면 삼성의 도시 수원에 딱하니 노동조합이 세워졌으니 삼성은 더욱 긴장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계속해서 견재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다가온 서수원센터, "끝까지 한번 해볼거예요!"라는 당찬 포부를 응원하며, 이제 함께 갑시다! 삼바!



파국 싫으면 내라

경기남부 16차 통합교섭결과

16차 경기남부 통합교섭이 18일 오후 1시에 열렸다. 사측 교섭대표는 “노사간 뒤숭숭한 분위기다. 전국에서 지명파업을 진행하는데 교섭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우려스럽다. 교섭국면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교섭이 노사가 다 만족 못하는 진도인 것 같다”며 “교섭국면으로 가는 것인지 폐업문제로 쟁의국면으로 가는지”를 물었다.

늦고 뒤숭숭한 이유는 뭔데

노조 교섭단은 “사측 대표 말 그대로다. 교섭속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폐업 변수를 만든 것도 회사다. 3월5일 임금안 제시한다더니 임금액 제시 않았다. 오늘 임금액 제시 하라”고 했다.

사측 교섭대표는 “노조는 늘 사측에게 뭘 내놓지 않으니까 쟁의한다고 한다. 3월 5일 다양한 고민을 해서 안을 냈고 단협도 수정안 내라 해서 냈는데 검토를 못하고 있다”며 “임금체계는 교섭테이블에서 못 다루지만 사이드에서 논의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내지 않으면 쟁의 강도 확 높인다

노조 교섭단은 “그러면 회사는 폐업센터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위해 대책을 내놓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사측교섭대표는 “그 문제는 교섭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다. 새로운 사장이 생기고 그림이 나와야 고민할 수 있는 문제”라며 “질문의 취지는 알겠다. 우리는 교섭을 위임받은 입장이라 지금은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교섭단은 “폐업에 대한 전향적 조치와 임금액을 제시하라”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향적인 안을 내지 않으면 다음 주에 쟁의 수준을 높여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포커스가 뭐냐고?

사측 교섭대표는 “임단협이 진척되지 않는 것이 포커스냐 폐업문제가 포커스냐”고 물었다.

노조 교섭단은 “당연히 두 가지 다 포함한 것이다”며. “사측이 원하면 폐업안건을 독립적으로 다루자”고 했다. 사측이 침묵하자 “단협에서 폐업도 포함해서 고용안정조항으로 다루자”고 하자 사측은 “단협은 앞으로 있을 규범을 만드는 문제이지 지금 벌어진 현실문제와는 다른 것이 아니냐”고 했다. 노조 교섭단은 “현재 벌어진 문제를 제외한다면 그게 일반규범이냐”고 비판했다.

리스차량 서약서가 다시 불거졌다. 사측은 노조의 수정계약안 받을 의향없다며 “리스차량 대여하는 회사는 이런 경험이 없다. 일단 실행하면서 개선하자”고 했다. 교섭국면으로 가자면서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다. 입만 아프니 교섭끝내기로 하고 30분 만에 교섭을 마쳤다.

회사 작전 실패 모르나?

사측은 말로는 빨리 교섭을 진척을 원한다며 폐업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포함해 임금액제시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교섭을 진척시키려는 전향적인 사측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련없이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미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민주노총 차원에서 대재벌 대삼성투쟁에 속도를 붙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사측 작전은 실패하고 있다. 몇 개 센터를 폐업해 우리를 흔들려 하지만 마산, 창원을 비롯해 서수원센터까지 노조에 가입했다. 조직이 늘어나고 있다.

꼼수는 안 통한다. 사측은 솔직하게 깨 놓고 교섭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붙든지 선택하라.